

경제통상 핫이슈

美-中 정상회담 주요 합의 및 시사점

- **지난 5월 14일, 美 트럼프 대통령과 中 시진핑 주석은 정상회담을 갖고 무역·투자·지정학 전반에 걸친 포괄적 합의를 도출하며 미·중 관계의 새로운 국면을 공식화**
 - 9년 만의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으로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 없이 '공정성과 상호주의에 기반한 건설적 전략적 안정 관계 구축'에 합의하며 관계 회복 의지를 표명
 - 닉슨 전 대통령 방중 이후 54년 만에 현직 국방장관을 대동하였으며, 젠슨 황, 일론 머스크, 팀 쿡 등 美 빅테크 기업 수장이 동행해 경제·통상 외 기술·안보 분야 의제 중요성이 부각됨
- **지정학 분야에서는 이란 전쟁, 북한 비핵화 등에 대한 입장을 조율하며 미·중 협력의 최소한의 틀을 구축하였으나, 대만 문제에 있어서는 양국은 원칙적 입장 고수**
 - 양국 정상은 이란 핵 보유 금지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자유 보장에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나, 문서화된 구체적 합의에는 이르지 못해 이란 종전 협상 불확실성은 지속
 - 아울러, 주요 의제 중 하나인 북한 비핵화를 공동 목표로 재확인한 점도 주목할 만한 사안
 - 다만, 대만 문제에 대해 시진핑 주석은 충돌 가능성을 경고하며 미국의 입장 표명을 요구한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관련 언급을 자제하며 미국의 기존 정책에는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
- **이번 회담의 제도적 성과는 '미·중 무역위원회(Board of Trade) 및 투자위원회(Board of Investment)' 신설로, 이를 통해 미·중 각각 300억 달러 이상 규모의 상품 관세 인하 논의 예정**
 - 무역위원회는 비민감 품목의 양자 무역 관리를 담당하고, 투자위원회는 투자 관련 정부 간 협의 채널로 기능하여, 통상 분쟁 발생 시 양국 정부가 직접 조율하는 선례를 확립
 - 이는 WTO 중심의 다자 무역질서와 병행하여 미·중 양자 간 직접 협상 채널이 제도화 되는 흐름으로, 향후 실질적 운영 방식과 권한 범위가 구체화되는 과정을 주목할 필요
- **실물 경제 분야에서는 항공기·농산물·희토류 등 구체적 수치가 포함된 복수의 시장 개방 합의가 도출되었으나 세부 이행 조건 미공개로 합의 실행 여부는 불확실**
 - 중국은 2017년 이후 처음으로 미국산 보잉 항공기 200대 구매를 승인하였으나, 10년 만의 대규모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며 보잉 주가는 4% 이상 하락
 - 아울러, 3년간 연간 최소 17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약속하였으며, 400개 이상의 미국 쇠고기 가공시설 인증 재개 및 신규 등록 등 농산물 시장 개방 조치 발표
 - 희토류 분야에서는 이트륨·스칸듐·네오디뮴·인듐 등 핵심 희토류 관련 미국의 공급망 우려 해소와 희토류 생산·처리 장비 및 기술에 대한 수출 완화 약속

뉴스 큐레이션

경제·통상 뉴스

美 30년물 국채금리 5.2% 근접...2007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 19일 미 30년물 국채금리가 5.197%로 급등하며 약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금리 인상 가능성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가격에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글로벌 채권 매도세가 확산

※ 원문 링크 : [CNBC \(5/19\), 30-year Treasury yield tops 5.19%, highest since before the financial crisis](#)

美 4월 소매판매 0.5% 상승...고유가에 소비 위축

- 14일 미 상무부가 발표한 4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5% 증가에 그쳐 전월 증가율 대비 크게 둔화했으며, 주유비 상승으로 다른 영역에 대한 소비를 줄인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

※ 원문 링크 : [CNBC\(5/14\), Retail sales up 0.5% in April, as expected](#)

美 4월 CPI 전년 대비 3.8% 상승...예상치 부합

- 12일 미 노동부는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대비 3.8% 상승했다고 발표했으며, 에너지 비용 상승 등 이란 전쟁의 경제적 파급효과로 2023년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

※ 원문 링크 : [CNN\(5/12\), US inflation rose to 3.8% in April, eroding Americans' paychecks](#)

美 상급법원, '122조 근거 10% 보편 관세' 위법 판결 효력 정지

- 12일 미 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10% 대체 관세 부과에 대한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의 위법 판결 집행을 일시 정지하였으며, 최종 판결 전까지 관세 징수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원문 링크 : [Reuters\(5/12\), US appeals court pauses ruling against Trump's 10% global tariff](#)

한-미, 조선 파트너십 이니셔티브 'KUSPI' 설립 MOU 체결

- 8일 韓 산업통상부와 美 상무부는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상선 건조와 인력 양성, 산업 현대화, 해양 제조 투자에 있어 양국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연내 워싱턴 DC에 센터를 설립할 예정

※ 원문 링크 : [ITA\(5/8\), The United States and Korea Sign MOU to Advance Bilateral Shipbuilding Cooperation](#)

지역·산업 뉴스

일론 머스크, OpenAI 상대 1,500억 달러 규모 소송 패소

- 18일 美 캘리포니아 연방 배심원단은 OpenAI의 영리화가 설립 취지에 반한다는 머스크 측 청구에 대해 제소 시한이 지났다고 만장일치로 판단하였으며, 재판부는 이를 수용해 청구를 전면 기각

※ 원문 링크 : [Reuters\(5/18\)](#), [OpenAI defeats Elon Musk's lawsuit, removes obstacle to IPO](#)

가온전선, 메타 데이터센터 부품 4兆 수주

- 18일 LS전선 자회사 가온전선은 美 빅테크 메타와 AI 데이터센터에 2030년까지 국내 업계 역대 최대 공급계약인 4조 원대 버스덕트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

※ 원문 링크 : [한국경제\(5/18\)](#)

힐 카운티, 텍사스주 최초로 데이터센터 건설 유예 조치 통과

- 델러스 남서부 힐 카운티는 무분별한 데이터센터 진입으로 인한 용수·전력 부족과 환경 파괴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호소에 대응해, 텍사스 최초로 '1년간의 데이터센터 건설 유예 조치'를 통과

※ 원문 링크 : [Politico\(5/16\)](#), ['We're gonna get sued.' Texas county passes 1-year data center construction ban](#)

우버, '배민 모회사' DH 최대주주로 등극

- 18일 우버가 배달의민족 모회사인 딜리버리히어로(DH) 지분을 약 7%에서 19.5%로 확대하며 최대 주주가 되었다고 밝힌 가운데, 우버·네이버가 8대2 지분 구조로 배민 인수를 추진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네이버는 다양하게 검토 중이며 결정된 바는 없다고 해명

※ 원문 링크 : [한겨레\(5/19\)](#)

CJ컵, 21일 텍사스서 개막... K푸드·컬처 알린다

- 21일 CJ그룹이 후원하는 PGA 투어 '더 CJ컵 바이런 넬슨'이 텍사스에서 나흘간 열리며, 대규모 홍보관 '하우스 오브 CJ'를 통해 전 세계 갤러리들에게 다채로운 K-Culture 경험을 선보일 예정

※ 원문 링크 : [조선일보\(5/5\)](#)

보고서 훑아보기

美 싱크탱크 CSIS 보고서 - 관세가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미치는 영향

* 전략국제연구센터, '관세가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미치는 영향: 공급망 보안과 AI 인프라 리더십의 균형 유지'(26.5.14.) 보고서 요약. [원문보기](#)

- AI 데이터센터 구축 비용은 물리적 인프라 및 IT 하드웨어로 구성되며, 데이터센터 1달러 투자 중 약 54센트가 반도체에 투입되는 등 반도체가 핵심 비용 요소로 부상
 - (㉠ 물리적 인프라) 냉각·건물·전력 인프라 등의 설비로 데이터센터의 용량에 비례해 시설당 약 1,000만 달러 수준의 비용 발생
 - (㉡ IT 하드웨어) 서버·스토리지·네트워킹 장비가 전체 자본지출의 약 65.5%를 구성하며, 이 중 반도체는 일반 데이터센터 기준 서버 가치의 81%를 차지
 - 2030년까지 미 데이터센터가 도입할 반도체는 1조 4천억 달러 이상이나, 미국 내 반도체 제조 역량이 글로벌 생산의 약 12%에 불과해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할 전망

- 반도체 232조 관세 부과는 시나리오에 따라 구축 비용에 최소 수천억 달러에서 최대 1조 4,400억 달러의 추가 부담을 초래할 전망

시나리오	100% 관세	50% 관세	25% 관세
(A) 모든 반도체 및 파생제품 원산지·용도 불문, 모든 칩 및 칩 내장 제품에 부과	\$1조 4,400억	\$7,200억	\$3,600억
(B) 파생 제품만 해당 (반도체는 면제) 베어 반도체 면제, 내장 칩 제품에 부과	\$1조 1,500억	\$5,760억	\$2,880억
(C) 대만산 반도체만 관세 면제 미국 로직칩 수입의 약 44.2%가 대만산 추정	\$3,790억	\$1,900억	\$950억
(D) 미국 내 제조 기반을 보유한 기업 대상 관세 면제 미국 내 사업장을 공약한 칩 설계사·제조사 면제	최소 영향		

- 반도체 관세의 비용 충격을 국산화만으로는 단기간 내 흡수하기 어려우며, 향후 5년간의 AI 인프라 구축은 불가피하게 수입 반도체에 의존
 - CHIPS Act 기반 140개 프로젝트에 6,300억 달러가 투입되어 2032년까지 제조 역량이 203% 증가할 전망이나, 국내 수요(글로벌 소비의 25%)를 충족하기에는 여전히 부족
 - 보조금 적용 후에도 미국 팹의 건설 비용은 대만 대비 10%, 운영 비용은 35% 높으며, TSMC 파닉스 공장의 칩당 생산 비용은 대만 대비 50% 높아 국제 경쟁력 미흡
 - 미국 팹의 허가부터 생산까지 평균 38개월이 소요되어 대만(19개월) 대비 약 두 배에 달하며, 인력 부족(2030년까지 약 6만 7,000명 미충원 우려)이 비용 상승을 더욱 가중
- 반도체 관세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공급망 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한부 반도체 관세 면제·허가 간소화·인력 양성·동맹국 협력 등 보완 정책 병행이 필요

뉴스라인 스페셜

〈전문가 칼럼〉 'BOGO'와 '2 for \$1'의 차이점에서 배우는 경영학

미국에 오면 한국에서보다 실제로 마트에 방문하여 장을 보는 일이 많다. 마트의 종류도 텍사스에만 있는 H.E.B 부터, Costco, Walmart, Kroger, Whole Foods Market, Sam's club 등 너무나 다양하다. 오늘 기고에서는 미국 내 마트가 채택하는 전략과 그 속에 숨은 경영학적인 시사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김창희 교수
인천대학교 경영대학
(Visiting Scholar,
Texas Christian University
Neeley School of Business)

미국 마트에서 장을 보면 BOGO(Buy One Get One Free) 행사나, 2 for \$1 행사 등을 매우 흔하게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행사를 한국 마트식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조금 독특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1+1 덤 행사나, 2개를 사면 1만원 등의 행사가 사실 거의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예를 들어, 1+1에 1만원이라거나, 2개를 사면 1만원이라면 둘 모두 동일한 결과를 가진다. 물론, 이것은 미국에서도 같을 것이다. BOGO 상품이 \$1인 것이나, 2 for \$1 행사 둘 모두 두 개의 상품에 \$1를 받는 것은 동일하니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으로 같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1개만 구매한다고 했을 때 차이가 발생한다. 한국 마트에서는 1개만 구매할 경우, 원래의 날개 가격인 7천 원이나 8천 원을 온전히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1+1이나 '2개 만 원'이라는 제안은 어디까지나 두 개를 모두 집어 들었을 때만 발동되는 조건부 계약이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 마트에서의 BOGO 행사는 한국 마트와 같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 마트의 2 for \$1 행사는 다소 다르다. 아내와 미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방문한 마트에서 Green onion이 2 for \$1 행사를 했는데, 실수로 5개를 가지고 계산대에 왔다. 하나를 빼야겠다고 생각한 순간, 개별 Green Onion이 각각 \$0.5씩 계산되는 것이 아닌가? 실제로 2 for이 붙어 있거나 3 for이 붙어 있는 물건들 모두 당당하게 물건 하나만 계산대에 올려놓아도, 영수증에는 정확히 해당 가격의 1/n이 찍히는 경험을 심심치 않게 하게 된다.

이렇게 보면, 미국의 마트는 한국의 마트보다 더 정직하게 계산하는 것 같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 작은 차이는 단순히 계산 방식의 차이를 넘어, 미국 시장이 소비자를 유도하는 마케팅 프레임워크와 운영 전략의 핵심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어차피 날개로도 할인해 줄 거라면 왜 번거롭게 2 for \$1라고 적는 것일까? 그냥 'BOGO(Buy One Get One Free)'라고 하거나 '50% 할인'이라고 적으면 더 깔끔하지 않을까? 여기에는 마케팅과 마진 관리를 위한 치밀한 수 싸움이 숨어 있다.

첫째는 숫자를 통한 앵커링 효과(Anchoring Effect)의 극대화다. BOGO가 공짜(Free)라는 감성적 자극에 호소한다면, 2 for \$1는 숫자를 통해 소비자의 구매 기준점(Anchor)을 강제로 끌어올린다. 소비자는 날개로도 할인이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가격표에 적힌 2라는 숫자에 마음이 묶여 평소보다 더 많은 양을 장바구니에 담게 된다. 실제로 수량 앵커링은 단일 가격 표기보다 판매량을 월등히 높인다는 것이 여러 경영학 연구들을 통해 증명된 바 있다.

둘째는 마진 최적화의 유연성이다. BOGO는 무조건적인 50% 할인을 의미하지만, 수량 할인 방식은 마트가 할인율을 정교하게 조정할 수 있게 해준다. 예를 들어 원래 \$0.6인 상품을 2 for \$1로 제안하면, 마트는 50%가 아닌 약 16%의 할인만으로도 소비자에게 묶음 혜택을 주는 것 같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 즉, 제품의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기업의 수익성을 방어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지인 셈이다.

셋째는 운영 효율성과 법적 리스크 관리다. 텍사스의 거대한 마트들은 하루에도 수만 건의 결제를 처리한다. 만약 계산대에서 날개 구매 고객에게 할인을 적용하느냐 마느냐로 실랑이가 벌어진다면 이는 치명적인 병목 현상을 야기한다. 또한 미국 법령은 소비자가 가격을 오해하게 만드는 기만적 광고를 엄격히 규제한다. 따라서 마트들은 시스템상으로 단가를 미리 낮게 설정해 두어 결제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가격 표기에 따른 법적 분쟁 소지를 사전에 차단한다.

그렇다면 왜 한국은 미국처럼 쿨하게 1개만 사도 깎아주지 않는 걸까? 거기엔 한국 특유의 고밀도 유통 환경이 자리 잡고 있다. 비싼 임대료를 감당해야 하는 한국 마트에게 '공간'은 곧 돈이다. 고객이 하나를 더 집게 만드는 1+1 전략은 재고 회전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생존 방식이다. 여기에 '덤'을 사랑하는 한국적 정서와 제조사 간의 복잡한 판촉 비용 분담 구조가 더해져, 한국식 묶음 판매는 단순한 할인을 넘어선 하나의 거대한 '이벤트'가 되었다. 결국 미국의 방식이 투명한 효율성을 지향한다면, 한국의 방식은 밀도 있는 성취감을 지향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미국 마트의 이러한 정책은 소비자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는 듯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고객의 보폭과 장바구니의 무게를 결정하기 위한 고도의 경영학적 설계가 깔려 있다. 미국의 마트 매대 앞에서 우리가 느끼는 그 50센트의 정직함은, 사실 기업의 철저한 계산과 운영의 효율성이 빚어낸 정교한 결과물인 것이다.

주요 경제지표

● 美 주요 경제지표 캘린더

발표 일자	경제지표	실제	전망	이전
5월 8일	4월 실업률(Unemployment Rate)	4.3%	4.3%	4.3%
↳ 4월 실업률은 4.3%로 시장 예상과 일치하였으며, 실업자 수는 소폭 증가에도 전월과 큰 변화 없는 수준을 유지				
5월 13일	4월 생산자물가지수(PPI, MoM)	1.4%	0.5%	0.7%
↳ 4월 생산자 물가는 전월 대비 1.4% 상승하여 2022년 3월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				
5월 14일	신규실업수당신청건수(Initial Jobless Claims, WoW)	211K	205K	199K
↳ 전망치와 전주치를 모두 상회했음에도,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며 노동시장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감				

출처 : Investing.com

● 주가 & 금리(미국)

- 빅테크 1분기 실적 호조에 힘입어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나, 미 30년물 국채금리가 약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금리 상승 압력이 지속되며 증시는 재차 약세로 전환

구분	05.19	05.05	2W(% ,bp)	04.21	1M(% ,bp)	25.12.31	YTD(% ,bp)
S&P500	7,353.6	7,259.2	+1.30	7,064.0	+4.10	6,845.5	+7.42
국채 2년	4.12	3.94	+18.40	3.78	+34.30	3.47	+65.30
국채 10년	4.67	4.42	+25.30	4.29	+37.70	4.15	+51.60

출처 : Investing.com

● 국제유가(최종가 기준, 단위 : \$/배럴)

-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도 호르무즈 해협 개방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아 공급 차질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석유회사의 원유 재고 감소 발표로 유가는 상승 흐름을 보임

구분	05.19	05.05	2W(%)	04.21	1M(%)	25.12.31	YTD(%)
Dubai	106.80	106.60	+0.19	94.27	+13.29	61.59	+73.40
Brent	111.28	109.87	+1.28	98.48	+13.00	60.85	+82.88
WTI	108.66	102.27	+6.25	92.13	+17.94	57.42	+89.24

출처 : 페트로넷

● 주요국 환율

-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로 인한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는 가운데, 시장이 금리 동결 또는 인상을 전망하며 달러 강세를 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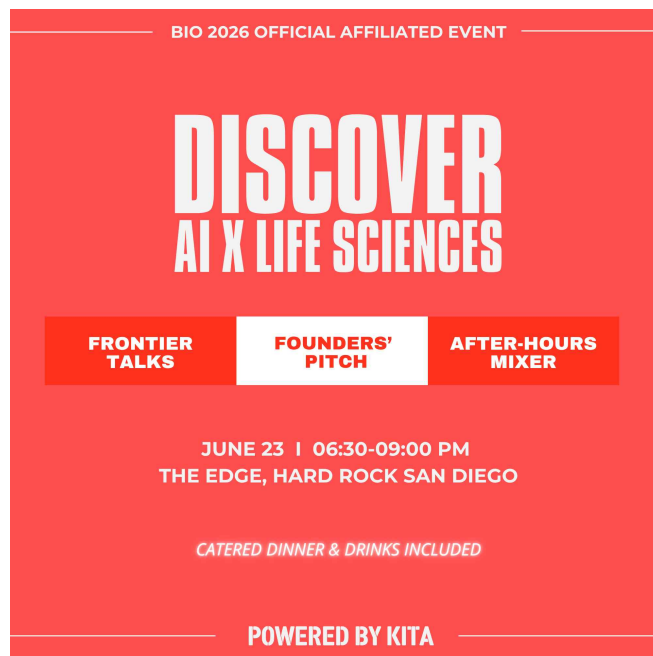
구분	05.19	05.05	2W(%)	04.21	1M(%)	25.12.31	YTD(%)
USD/KRW	1,507.9	1,469.4	+2.62	1,483.6	+1.64	1,440.6	+4.67
USD/JPY	159.1	157.9	+0.74	159.4	-0.21	156.7	+1.52
USD/CNH	6.817	6.828	-0.15	6.828	-0.16	6.976	-2.28
EUR/USD	1.161	1.169	-0.74	1.174	-1.16	1.175	-1.18
달러인덱스	99.33	98.44	+0.90	98.39	+0.96	98.32	+1.03

출처 : Investing.com, 한국은행

행사 알리미

DISCOVER AI X LIFE SCIENCES 개최

- 한국무역협회 델러스지부는 글로벌 바이오산업 전시·파트너링 행사인 BIO USA 2026의 공식 부대행사로 'DISCOVER AI X LIFE SCIENCES'를 개최
 - AI 연계 생명공학 분야 내 주요 스타트업, 투자자를 초청하여 강연, 피칭, 네트워킹의 기회를 제공하고, 혁신 스타트업의 美 현지 진출을 지원할 예정
- 행사 안내
 - 행사명 : DISCOVER AI X LIFE SCIENCES
 - 일 시 : 2026년 6월 23일(화) 오후 6:30-9:00
 - 장 소 : HardRock San Diego, The Edge (2F)
 - 규 모 : 80명



본 뉴스레터의 구독 신청을 원하시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구독 취소는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5700 Granite Pkwy, Suite 402, Plano, TX 75024

☎ 469-409-1004 ✉ newsline@kita.net

발행처 : 한국무역협회 델러스 지부

* 본 뉴스레터의 내용은 한국무역협회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26 KITA Dallas Center. All rights reserved.